

광주 서수연 탁구 2관왕...“파리 패럴림픽 금메달 따겠다”

전남 '장애인 수영 간판' 최길라
한국신으로 2관왕·은메달도 2개



인건과 평등으로 빛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선수들의 투혼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 서수연(37·광주시청)이 탁구 종목에서 2관왕에 올라 한 차원 높은 기량을 선보였다.

서수연은 6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혼성 복식(체급 총합4) 결승에서 박진철(41·광주시청)과 짝을 이뤄 윤지유(23)·박성주(44·경기) 조를 꺾고 우승했다.

지난 4일 단식 클래스2에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서수연은 혼성 복식에서도 시상대 맨 위 칸에 서며 2관왕에 올랐다.

서수연은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 정말 기쁘다”면서 “2024 파리 패럴림픽까지 열심히 훈련해 꼭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밝혔다.

키 175cm로 애초 모델을 꿈꾸던 서수연은 2004년 의료 사고로 휠체어를 탔다.

모델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장애인 탁구



에이스가 돼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장애 극복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2015년 양안 아시아선수권대회, 2018년 라스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서수연은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 그랜드슬램까지 패럴림픽 금메달만을 남겨뒀다.

전남에서는 '장애인 수영 간판' 최길라(20·전남 장애인수영연맹)가 저력을 과시했다.

최길라는 이번 체전에서 한국신기록으로만 2관왕에 올랐다.

최길라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지난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냈다.

최길라는 지난 3일과 6일 광양 성황스포츠클럽 탁구장에서 열린 수영 종목에서 자유형에서 금메달 2개, 평영과 계영에서 각각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최길라는 앞서 3일 오전 수영 여자 자유형 200m S12 선수부에서 3분36초57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수영 여자 평영 100m SB12 선수부에서는 1분50초78의 기록으로 2위로 결승선을 찍었다.

최길라는 이어진 경기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섰다.

최길라는 6일 오전 수영 여자 자유형 400m S12 선수부에서 7분44초71로 다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2관왕을 차지했고, 같은 날 오후 열린 수영 혼성 계영 400m 49Point 선수부에서는 김혜림, 이태영, 차흥범과 7분22초16으로 은메달을 추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길라는 지난해 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당시 수영 여자 자유형 400m S12 선수부에서 7분50초6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6초 이상 기록을 단축하며 한국신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최길라는 “최선의 다했는데 우승하고 한국신기록을 깨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더욱 노력해 국가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을 알리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지혜, 3개 종목 한국신 3관왕

포환·원반·창던지기 모두 한국신기록 작성

김천천·김선정 삼남매 금 9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투척 종목의 김지혜(17·시각·광주장애인육상연맹·광주 여고 3년)가 포환·원반·창던지기 등 3개 종목 모두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올랐다. 지난 체전에 이은 한국신기록 3관왕 기록이다.

김지혜는 7일 목포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필드 여자 포환던지기 F13(선수부) 경기에서 7m06을 던져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지혜의 지난 대회 자신의 기록 6m43을 넘어선 한국신기록이다.

김지혜는 5일 원반던지기에서도 22m98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앞서 4일에는 여자 창던지기에서 21m27를 기록, 지난해 자신의 한국 신기록(17m52)을 4m 이상 경신했다.

김지혜는 시각장애 육상 선수인 오빠 김천천(23·광주장애인육상연맹)의 영향을 받아상무 중 2년 재학 중인 2019년부터 육상을 시작했다



김지혜

다. 김지혜는 천부적인 재능에 노력까지 더하며 2019년 제1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관왕(여자 원반·포환던지기)과 2021년 제1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관왕(여자 원반·포환던지기)을 달성했다. 생

애 첫 출전한 지난해 장애인체전에서 3개 종목의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 3개를 획득,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냈다.

그리고 이번 장애인체전에서 삼남매가 3개씩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 집안 9개 메달을 수확하는 진기록을 달성하는 기쁨도 누렸다.

김지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어서 매우 뿌듯하고 좋았다. 늘 도와주시는 코치님과 감독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 오프사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캡틴'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첼시에 돌미를 잡으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13분 왼쪽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올린 낮은 크로스를 달려들어 발을 갖다 대 골을 터뜨렸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공은 골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비디오 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였다.

/연합뉴스

손흥민, 아쉬운 골 취소... 토트넘 시즌 첫 패배

첼시에 1-4 완패



'캡틴'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거듭된 악재 속에 첼시에 돌미를 잡으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3-2024 EPL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번 시즌 8골을 터뜨리며 엘리 링글랜드(맨체스터 시티·11골)에 이어 EPL 득점 순위 공동 2위를 달리는 손흥민은 이날은 골이나 도움을 추가하지 못했다.

풀럼과의 9라운드 1골 1도움,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10라운드 1골 등 최근 2경기에서 이어진 공격 포인트 행진이 끊겼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맞이한 이번 시

즌 개막 이후 리그에서 지난 10경기 8승 2무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토트넘은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데스티니 우도기가 잇따라 퇴장당한 변수 속에 1-4로 완패해 첫 패배를 떠안았다.

승점 26의 토트넘은 맨시티(승점 27)에 이어 2위를 지켰다.

2014~2019년 토트넘을 이끌며 손흥민의 영입과 EPL 안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은 첼시는 이번 시즌 4승(3무 4패)째를 거두며 10위(승점 15)로 올라섰다.

출발은 토트넘이 좋았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역습 상황에서 파페 사르의 패스를 받은 데안 쿨루세브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가 때린 원반 슈팅이 골문에 꽂히며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는 듯했다.

전반 13분엔 왼쪽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보낸 낮은 크로스에 손흥민이 달려들어 발을 갖다 대 골

문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VAR)으로 오프

사이드가 지적돼 추가 골 기회를 놓쳤다. 첼시도 전반 21분 혼전 상황에서 라힘 스티어링의 슈팅이 들어갔으나 VAR로 핸드볼이 확인되며 득점이 취소됐다.

전반 33분 로메로의 퇴장으로 경기 흐름은 크게 요동쳤다.

페널티 지역 안에서 슈팅 시도하던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로메로가 깊은 태클을 했고, 주심의 온 필드 리부르 레드카드가 나왔다.

이에 따른 페널티킥으로 첼시 골 파머의 동점 골이 나오며 승부는 안갯속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전반 막바지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수비수 미키 판더벤도 헬스트링을 다쳐 더 큰 위기에 몰렸다. 이들은 각각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와 에메르송 로얄로 바뀌었다.

12분이나 주어진 전반 추가 시간 중엔 양 팀 선수들의 신경전으로 한 번에 경기가 3장이 나올 정도로 불꽃 튀는 양상이 이어졌다.

토트넘의 위기는 후반에도 이어졌다.

후반 10분 풀백 우도기가 패스 실수 이후 상대를 막아서려다 무리한 태클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며 퇴장당해 9명만 남았고, 결국 후반 30분 니콜라 잭슨에게 역전 골을 허용했다. 이후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하는 첼시를 상대로 토트넘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

후반 33분 프리킥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의 슈팅이 들어갔으나 오프사이드에 걸렸고, 후반 41분엔 왼쪽 측면에서 페드로 포로가 올린 프리킥에 로드리고 벳타쿠르가 발을 갖다 대던 것이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가 땅을 쳤다.

9분이 주어진 후반 추가시간이 3분가량 지났을 때는 손흥민이 단독 드리블 돌파 이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날린 회심의 원반 슈팅이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그 직후 잭슨의 썩기 골로 첼시가 승기를 잡았고, 추가시간 막바지 잭슨이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4번째 골까지 나오며 결국 토트넘은 완패를 곱씹어야 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토트넘 스태프와 인사한 뒤 손흥민과도 포옹하며 위로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토트넘 '10월의 골'

9월 이어 연속 수상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이자 공격의 핵심인 손흥민이 2개월 연속 팀 자체 선정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토트넘 구단은 7일(한국시간) "손흥민이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 승리 때 득점으로 10월 '이달의 골' 상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즌 EPL에서 8골을 터뜨려 리그 득점 순위에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토트넘 최고의 골 주인공으로 뽑혔다.

지난달 28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EPL 10라운드 원정(2-1 토트넘 승)에서 후반 21분 터뜨린 결승골이 손흥민에게 '10월의 골' 트로피를 안겼다.

당시 제임스 매디슨과 공을 주고받은 브레넌 존슨이 골 지역 안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고, 손흥민이 원반 마무리로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은 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 이달의 골 선정 투표에서 4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토트넘은 전했다.

/연합뉴스